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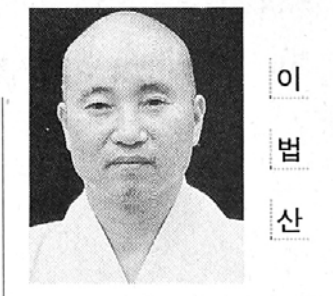
며칠전 어떤 법회가 끝나후 한 신도가 "아들이 공직에 있는데 어머니가 젊어 너무 열심이면 혹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다.

그렇지 않아도 세대, 이념, 학력, 지역과 빈부의 차이 등으로 국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이때 대통령이 개인적 신앙에 치우쳐 편향된 모습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종교적인 갈등마저 더욱 깊어갈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스럽다. 굳이 다른나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면 권력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교전쟁으로까지 치달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김영삼정부가 출범하고부터 불교계는 계속 놀라고 있다. 김대통령 취임 초에는 목사를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찬송가를 울리며 예배를 보더니, 역대로 모셔왔던 청와대의 불상이 수난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일본 호스카와수상과 함께 참배한 불국사 법당에서 남의 나라 수상도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 성상앞에서 정중한 예를 갖추었던 정작 김대통령의 험악한 모습을 본 국민의 눈은 또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인사에서도 고위직의 종교를 볼 때 불자가 현격하게 적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이제는 국군중양교회 내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모습이 TV에 비쳐졌다. 어처구니없게도 바로 옆에 있는 불교 법당에 참배는 사람들은 경호의 미명 아

특별기고



이 법 산

래 강력 통제해왔다는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아연실색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지지 않은 당시 군교회내의 특수한 종교집단이 발생 군사기 진작을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상식밖의 대통령 출두였다.

과연 진실한 종교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의 괴로움을 헤아리는 대통령이려면 그것이 현명한 처사였을까.

게다가 불교계의 반발에 신한국당의 김윤환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단지 전화를 대통령 경호과정에서 범담청담의 불

더군다나 박찬종씨가 신한국당에 입당하고는 스스로 신한국당의 전도사임을 선포

통치자 본분 잊었는가

편을 주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더니, 일 전에는 이양호국방장관이 총무원을 방문하여 역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뿐 정작 대통령으로서 편파적 신앙활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불교계가 무엇을 분노하고 있는지 그 정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2천만 불교도는 초미의 관심사로 간주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하였고, 오인한 공보처장관이 중앙부처 1·2급 공무원 2백40명을 모아놓고 '역사 바로세우기' 특강에서 '김영삼 개혁의 전도사'임을 자처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공직자와 정당인이 특정종교의 지칭인 '전도사'로 자칭될 때 특정종교 외의 대다수 국민은 어리둥절하고 국가의 방향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부대를 가보면 지휘자가 어느 종교로 가느냐에 따라 예하 군인의 시선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누구나 공직하

는 사실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권력과 돈의 위력에 억눌리고 사달리며 눈치만 살피고 온 우리 국민의 정서에 대통령의 개인 신앙의 특성화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대통령과 관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차체에 김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통치자로서 2천만 불교도도 국민임을 인식한다면 집 매스컴을 통하여 불교도와 종단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방부의 무리한 행사기획과 경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변명하더라도 아랫사람이 종교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수 밖에 없는 현 정부의 분위기를 탓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종교를 신앙하는 각료들은 교육과 언론과 사회 각 부분의 정책이 종교차원에서 공정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한 사람의 국민도 버리지 않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란다. 단순한 불자들의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영도자이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민족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버릴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 일단 대통령이라는 지라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다면 그는 이미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교수)

시론

청소년이 모여드는 '사찰'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한달이 지났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중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서 큰 제목만 읽는 전직 대통령에 얽힌 이야기가 있고, 북한의 동포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필자는 청소년을 연구하기 때문에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청소년'에 관한 소식을 민감하다. 지난 한달은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10대 청소년의 우상인 유명가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를 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고 급기야는 이를 비판한 10대 소녀가 따라 죽는 일까지 생겼다. 또한 90년대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공식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집안에서 10대팬들이 연일 '깜짝'을 외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불교청소년의 해'로 삼은 교계는 청소년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의 생각과 생활이 자신의 청소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다르지, 또 다르게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온가족이 노래방을 가면 분위기가 깨지기 쉽다. 어른들은 '소양강체'나 '남행열차'를 부르려고 하고, 아이들은 '핑계'나 '홍보가 기가막혀'를 부르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포괄적으로 말해서 생활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청소년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사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 인정해야 옛날 청소년(현재 어른들)과 요즘 청소년사이엔 큰 차이중 하나가 '가치관 차이'이다. '질서'라고 할 때 어른들은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나이와 성별을 따져서 누가 더 뒷사람인지에 신경을 쓴다. 그런데, 아이들은 '질서'를 '차례로 줄서기' 정도로 본다. 따라서, 좌석배치를 할 때 먼저 '줄을 선 사람'이 좌석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뒷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큰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있던 사람과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혼자 사는데 익숙한 사람은 여러가지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호강스럽게 살고 있다. 보릿고개를 모르고 자란다는 것은 행운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골목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이사를 하고, 학교친구를 사귀면 하면 전학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도 놀 시간과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어린시절에 뛰어놀았던 산과 언덕은 아파트와 주택으로 꼭 차 있고, 동네어귀와 냇물은 도로나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다는 아이들

청소년문제를 걱정하고 청소년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 곳이 없다는 아이들에게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해도 '땅값' 때문에 엄두를 못낸다.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해도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방안을 찾는 이 시간에도 청소년을 유혹하는 업소는 늘어난다고 청소년들조차도 청소년은 자라서 어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하지만 대도시라도 수킬로미터만 가면 높은 산과 넓은 강이 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을 곳마다 사찰이 있기 때문에 불교계는 좋은 '수련터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 청소년이 마음대로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잘만 전달되면 자라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교계가 청소년육성에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方法)이 청소년에게 낯설었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가르침이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도회지에 포교원을 짓고, 불교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재가불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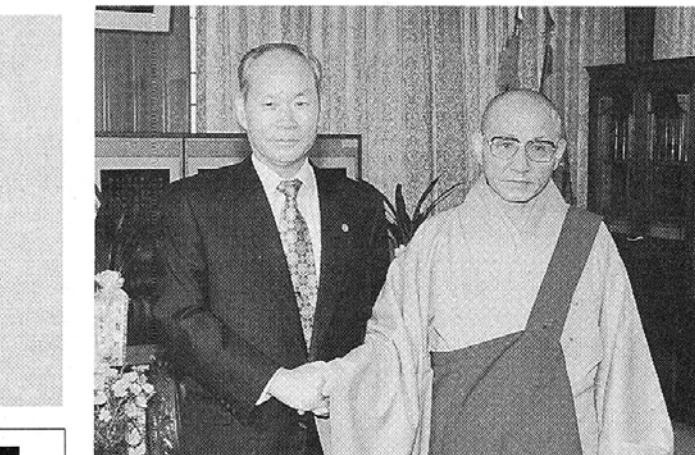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에 불교지도교사가 있고, 사찰에서 불교학교와 여름수련회가 열린다면 청소년은 모여들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잘 잘못을 가리기 전에 불교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이다.



이 용 교 (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

- 정경부 종교편향 사례**
- 1987년-▲김영삼대통령, 대선 당시 대통령에 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고 발언
 - 1993년 2월28일, 3월7일-▲청와대에 목사초청 예배, 언론에서 보도
 - ▲육군 17사단 법당폐쇄와 불상훼손
 - ▲성북구 관내 사찰간판 철거
 - ▲김영삼 안기부장, 제2훈련소 방문시 기독교 세례식 장려하도록 지시
 - 1994년-▲독립기념관 연못에

- 있는 연꽃제거 의혹 제기
- 1995년-▲공무원 인식년 휴가 제도 추진 시도
- ▲조계사 경찰난입
- ▲신학대학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교육개혁위 이름으로 발표
- ▲국가경정고시일, 부활절이라는 이유로 연기
- ▲지방세법 개정시 기독교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 유리하도록 조치
- ▲부처님 오신날 월드컵 유치를 위한 이탈리아 축구단(에이씨 일란트)초청 경기 강행



이양호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송구스라고 밝혔다.



이날 31일 불교지도교사들은 사간동 법원사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도·중·총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항의서한을 전했다.

김대통령 국군중양교회 예배참석 파문 일지

- 1월21일=▲김영삼대통령, 국군중양교회에서 예배(KBS, MBC, SBS 특뉴스도 보도)
- 1월23일=▲조계종 포교원 진상조사반 구성
- ▲국군중양법당 한상길법사 조사반에 상환설명
- ▲총무원장 및 각 부장과 종회부위원장 등 교계중진 20여명 안기부 초청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유감표명
- ▲태고종 전국신도회, 한국 불교청년회 성명서 발표
- 1월24일=▲실천승가회, 석림회, 대불청 등 6개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청와대 항의 방문: 안국파출소에서 1개 소대에 의해 저지당한
- ▲불교인권위, 경불련 등 8개단체 성명서 발표
- 1월25일=▲문체부차관 조계종 총무원에 '사과전화-총무원장, 정부에서 문화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할 것을 전달'
- ▲문종수 민정수석·박세일 사회복지수석·김영수 문체부 장관 사과전화
- ▲부천불교련 성명서 발표
- 1월26일=▲조계종 총무원 법불교 대책위 발족 협의
- ▲국민회의 박지원대변인, 민주당 김부겸대변인, 자민련 고순래대변인 논평: 개인의 종교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종교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국가 지도자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
- 1월27일=▲이양호 국방장관, 김우석 내무장관, 이각법 정책수석, 김은환 민자당 대표위원 전화: 사과표명
- ▲신한국당 손학규대변인 유감논평
- ▲재불련 전불련 불민협 등 6개 재가단체 대책위 구성: 성명서 발표
- 1월28일=▲국방장관, 국방부 호국관행사 성도절기념법회에 참석해 유감표명
- 1월29일=▲관음종 성명발표
- 1월30일=▲국방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 1월31일=법불교도대책위 대 표단,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1개소대에 의해 저지당한
- ▲태고종 보현도당, 불교인 권위,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 성명발표

생활 속의 불교

진리에 상표를 붙이려는 딱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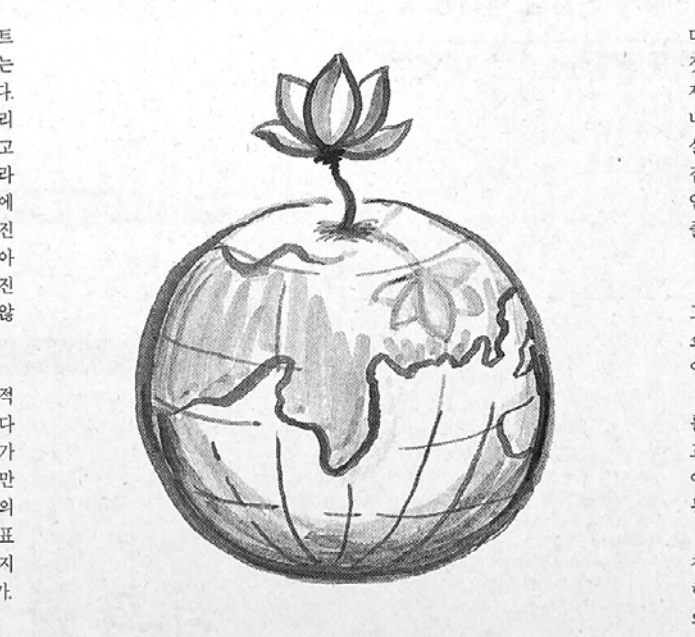
한 국민,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은 다 사람이다. 같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하고 구분하는 것은 역사·언어·사상·지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딱지를 붙여 놓은 것뿐이다.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사람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국인과 다를 바 없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어느 한쪽이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진 리엔 꼬리표가 없다. 상표도 없다. 어떤 딱지를 붙여도 진리가 진리인 짚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진리가 한낱 이름에 얽매일 수 없음을 그것이 진리인 때문이다. 만약 00주의, 00사상 하며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서로 다른 진리란 있을 수 없다. 이름이란 다만 상대세계의 묶이지 절대세계와는 무관하다. 인간이 자기 편견 또는 편의상 어떤 이름을 붙여 놓았다 해도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이다.

불 교·기독교·천주교·마호메트교...는 이름이다. 워낙 구분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편의상 붙여 놓은 이름이다. 예나저런 불교라고 이름 붙은 것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든가, 기독교라고 이름 붙은 것만 진리요 나머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이름에 집착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진리는 불교 표도 아니고 기독교 표도 아니다. 석가모니 표, 예수 표도 아니다. 진리엔 그런 당파적인 딱지가 필요치 않다. 이름은 이름으로써 죽할 뿐이다.

불 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른가? 용어가 다르니까 내용이 다른가? 자비와 사랑은 그렇게 파당적인 가르침인가? 다른 상표, 다른 딱지인가? 만약 석가모니의 자비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그것은 상표의 가르침일지언정 진리의 실체는 되지 못한다. 이 얼마나 큰 모순이며 망발인가.

불 교도의 불교, 기독교도의 기독교는



다를 수 있다. 분별을 좋아하고 패거리 짓기를 즐기는 인간들이나 진리에다가 제멋대로 딱지를 붙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름표 따위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름에 집착하는 언행 그 자체가 이미 가르침에 위배되는 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기 원 전 3세기, 인도 대륙을 통일하고 불교중흥에 빛나는 업적을 쌓았던 아쇼카 대왕은 인도 곳곳에 칩령비를 세워 이렇게 선포했다.

"...자기 종교만 숭배하고 타인의 종교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 다른 종교도 존중할 것이니 그래야 자기의 믿음에 도움이 되며 타인의 종교에도 똑같이 봉사하게 된다..."

불교 2천5백여 년 역사를 통틀어 가르침의 전파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일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포용의 정신, 포용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진리에 상표를 붙이려는 딱한 사람이 있다. 내 종교 내 종교를 유난히도 구별하려는 딱한 사람이 있다. 사당과 자비가 다르다고 우겨대는 딱한 사람이 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헌신하라고 남이 믿는 종교와 파당을 짓는 딱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일인 줄 모르는 딱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파벌적인 언행과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딱한 사람이 있다.

「불 교라는 이름의 '불'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요 '교'는 생활 속에서 배우고 닦는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무어라 지어 부르는 달걀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 복기 협찬: 진 광 우